

# 석유 최고가제 시행 후 첫 주...지역 기름값 '하락 전환'

광주 휘발유 지난주 대비 62원 줄어  
전남도 40원 ↓...가격 역전 현상 해소  
정부, 오는 27일 최고가 재설정 예정

광주·전남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제 시행 이후 첫 주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ㄹ당 1천810.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1천872.8원보다 61.9원 하락한 수치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천886.1원에서 1천808.5원으로 77.6원 떨어지며 휘발유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 역전 현상도 사라졌다.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ㄹ당 72.3원 내린 1천829.3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천828.0원을 기록하며 큰 폭을 보였다.

전남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1천828.6원으로 40.4원이 낮아졌고 경유 가격도 1천879.6원에서 1천807.7원으로 48.9원이나 하락했

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정부가 최근 시행한 석유 최고가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고가제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 가격을 제한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행 직후부터 일부 주유소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유가 하락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ㄹ당 1천829.3원으로 전주보다 72.3원 내렸으며 경유 평균 가격은 96.5원 하락한 1천828.0원을 기록해 더 큰 낙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ㄹ당 1천865.4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1천804.9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85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는 1천807.5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제유가 흐름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 가격 반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주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 대비 30.4달러 급등한 배럴당 158.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3달러 오른 142.7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3.5달러 상승한 203.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석유 최고가제에 따라 오는 27일 새로운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 이후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가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조속 제정·농지법 개정해야”

광주상의, 제도 개선 정부·국회 등 건의  
농지 타용도 사용 확대 등 3대 과제 제시

광주상공회의소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광주상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촌형 에너지 모델”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

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제한, 과도한 입지 규제,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상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확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임차농 보호 및 상생 협력 체계 마련 등 3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소 2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 운영을 전제로 투자와 금융 조달이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로는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농지 자체의 제한뿐 아니라 주거지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등 입지 규제에 의해 실제 사업 가능 부지가 매우 제

한적인 상황이다. 광주상의는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일정 기준 충족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국내 농지의 상당수가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실경작자인 임차농의 참여권과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와 합리적인 수익 배분 기준 마련 등 상생형 운영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 농협전남본부,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 실무교육

역량 강화·건전여신 관리기반 마련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2일 “지난 20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가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체채권 관리 방법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농축협 직원들은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연체율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광일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곧 상호금융 건전성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체관리 및 건전여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황인일 대한건설협 광주시회 제13대 회장 선출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사진)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2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이아트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2026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황인일 대표이사를 새로운 회

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6월 25일까지 광주시회를 이끈다.

신임 황인일 회장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2년 동안 회장 선거와 관련 소송으로 분열된 회



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핵심 공약으로 ▲화합과 통합된 협회 ▲회원의 수주영역 확대 ▲적정공기 및 공사원가 확보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불합리한 각종 법령 및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임재만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있는 장성 오일장**

### 황룡시장, 사거리전통시장, 사창시장

◎ 장이 서는 날 ◎

- **황룡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사거리전통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 **사창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Jangseong** 장성군 광고문의 : 062)650-2099